사람은 '습'으로 모습을 이룬다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⑧ 담마빠다

〈소부(小部)〉. 즉, 〈쿳다까니까야〉에 주옥같은 경전들이 많지만 특히 진리의 말씀(Dhamma pada)인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고민과 외로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세밀하게 설해져 있다.

〈법구경〉은 26개의 장에 423편의 시(詩)로 이루어져 있다. 26장의 품들은 '오늘'은 인간에 대한 행동규범에 관해서, '깨어있음'은 검소하고 근면한 삶을, '마음'은 마음에 관한 긍정적이며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꽃'은 들꽃에 비유하여 우아하고 섬세한 불멸의 세계를 가르치고, '어리석은 이'에서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판하고, '폭력'에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폭력은 절대 안되다는 가르침을 '자기 자신'은 나를 다스리는 방법들이 가득하다. 부처님께 듣고 싶었던 내 삶에 위안이 되는 말씀들이 시가 되어 별처럼 빛나고 있어 읽고 있으면서도 또 읽고 싶은 경전이다.

보이지 않으며 볼 수도 없고 미묘한 것,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그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상상하며 날아간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니 그 마음이 행복이다. - 게송 36번

아난 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있던 5명의 불자를 보고 놀랐다. 한 사람은 쿨쿨 자고 있었고, 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무의미하게 땅을 후벼 파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나무를 괜스레 잡아 흔들며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사람은 망연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고 오직 한 명만이 설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은 감로수와 같은데 저런 모습을 보니 답답합니다. 딱 한 사람만 집중해서 설법을 듣고 있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난아, 그것은 이들의 전생의 삶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을 땅을 파는 이는 전생에 지렁이로 오백생을 흙 속을 파고들며 살았기 때문에, 저기 나무를 흔들고 우왕좌왕하는 이는 지난 오백생을 원숭이로 살았기 때문이고, 하늘을 쳐다보던 이는 오백생을 하늘의 천문을 연구하고 별자리를 공부하며 점을 치던 사람이란다. 이들은 모두가 흘러가는 대로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래의 설법을 만나고도 가르침을 놓치고 있다. 아난아, 여래의 설법을 듣고 있는 이는 지난 오백생에 항상 브라흐만 으로 태어나 성전을 독송하는 데 열정적이었다. 그 덕분에 오늘 여래의 법문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아난에게,

"아난아, 너는 여래의 법문이 매우 듣기 쉬운 것으로 아는 듯하구나. 세상의 많은 중생들이 과거 억겁에 걸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대해서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런 그들이 여래의 법문을 만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육도에 윤회하며 살아온 삶의 흔적이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받고도 노래하고 춤추며 마시고 취하는 일에 빠져있을 지열정 여래의 법문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이들이 있지 않느냐."

"이들은 욕망 때문에 여래의 설법을 들을 수 없다. 바로 성냄과 증오와 어리석음 때문이다. 욕망의 불꽃보다 더한 불꽃은 없다. 욕망의 불꽃이 모든 중생을 모조리 태워버려 한 점의 재도 남겨두지 않는 무서운 것이다. 욕망의 불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고, 성냄보다 더 잘 얽매이고 붙잡는 것이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깊은 나락은 없다.

이 삼독이 그들의 앞길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곳이면 언제나 법회에 참석하여 졸거나 망상피지 말고 더욱 정진해야 한다.

욕망보다 더 뜨거운 불길은 없고, 증오보다 더 질긴 밧줄은 없다. 어리석음보다 더 단단한 그물은 없고, 탐욕보다 더 세차게 흐르는 강물은 없다. - 게송 251

〈서울 반야사 주지〉

여성과의 추문에 동요한 마음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⑦ 선지식에 대한 의심

무슨 생각이든지 다 부처님께 바칠 수 있다면 선지식에 대한 의심까지 부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어려운 것, 힘든 것은 다 바칠 수 있어도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고 말한 선지식에 대한 의심을 바치기 힘들었다. 선지식이 의심된다면 어찌 선지식이 시키는 '바치는 일'이 제대로 될까? 사실 군에서 제대하고 백 박사님 문중으로 출가할 당시, 어머님께서는 출가를 강력히 만류하셨다. 먹고 살기가 힘든 가정 형편에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 출가수도를 한다면 출가를 방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백 박사가 도인이라고? 너 정말 그 말을 믿느냐? 내가 얼마 전 부천에 가서 백 박사님 소문을 들었더니 함께 있는 딸 뻘의 젊은 여자와 함께 산다 하는데, 네가 말한 백 박사가 청정도인이라면 어찌 애욕을 해탈지 못하고 젊은 여자와 살수 있단 말이냐? 그런 사람이 어찌 도인이라 믿고 출가를 해." 이렇게 퍼붓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며 출가하여 공부하려는 마음이 위축되는 순간 "부처님 욕하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태산같이 하라"던 선지식의 법문이 생각났다. "어머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은 잘못 안 것이에요. 선생님 제자 중 김씨 성을 가진 도반이 그러는데 백 선생님께서는 70세가 넘도록 상좌도 두시지 않고 홀로 사시는 청정비구라 해요. 그 젊은 여자란 동국대 총장 시절부터 비서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부인이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잘못 오해한 것이에요."이런 말로 얼버무렸다. 그런데 출가하여 각종 분별심을 잘 바치며 이제는 어떤 분별심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던 어느 날, 막연하게 선지식에 대해 가졌던 불신에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일이 벌어졌다.선지식이 계신 도량에는 나보다 1년 이상 먼저 들어온 김씨, 이씨 성을 가진 두 도반이 있었다. 어느 날 몹시 고단하여 〈금강경〉을 읽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고단함에 못 이겨 두 도반들 보다 먼저 잠이 들었다. 잠결에 두 사람이 이야기 소리에 후닥 잠이 깨게 되었다."선생님 곁에 자주 드나드는 그 젊은 여자는 누구지?"이씨가 김씨 도반에게 물었다."그 사람 동국대 있을 때 선생님 비서로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사모님(선생님 부인)이라는 거야."김씨 성을 가진 도반은 아주 태연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김씨 성을 가진 도반은 백 박사님을 청정비구라고 나에게 소개했던 사람이었다. '비서가 아니야 사모님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설픈 선잠이 확 달아났다. '아, 내가 속았구나! 선생님께도 속았고 도반에게도 속았구나!' 1년 전 눈물로 나의 출가를 극구 만류하던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튿날 아침, 금강경을 읽는 둥 마는 둥 맥이 빠진 상태에서 겨우 우유를 식히려고 선생님이 계신 아래채로 내려가려는데, 저 아래 약 20m 앞에 선지식과 그 사모님이라는 문제의 여자가 나란히 문을 나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불쾌감을 느끼면서 내 입에서 '에이~ 더러운 것들' 하는 불경스런 말이 저절로 떠올랐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같았다.이때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약 20여 미터 되는 먼 곳에서 선지식께서는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어이 이 사람, 어제 밤에 큰 일 치렀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우렁찬 큰 소리에 나는 순간 정신이 확 들면서 졸도할 것 같은 어지러운 마음도 순간적으로 가라 앉았다. '어, 엊저녁에 큰 일 치렀네.' 그려면 선지식께서는 내가 밤새 잠을 못잔 사연을 정말 아시고 하신 말씀인가? 중생도 분별심을 닦아 분별심이 사라지면 부처님처럼 다 알게 된다더니 선생님께서도 부처님께서 아시듯 내 마음을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타심통의 도사라더니 정말 선지식께서는 정말 타심통을 하신 것인가?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成佛로 가는 지름길 '이뭣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참선에 대해 말하시기를 "설사 역천만겁 동안 나의 깊고 묘한 법문을 다 외운다 하여도 단 하루동안 도(道)를 닦아 마음을 밝힘만 못하느니라. 내가 아난과 같이 멀고 먼 전생부터 같이 도에 들어 왔다. 그러나 아난은 항상 글을 좋아해 글 배우는데 힘써 왔기 때문에 이제 까지 성불하지 못했지만, 나는 반대로 참선에만 힘써 도를 닦았기 때문에 벌써 성불하였다"고 하셨다. 간화선 '이 뭣고'는 밖으로 상(相)에 매여있는 중생들을 내안의 공성(空性), 불성(佛性)으로 회귀(回歸)시키는 일대사 인연(因緣)인 것이다. 아상(我相)이 떨어져 나간 그 공성(空性) 자리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래야 볼 수 없는 오직 모르고 모르는 일을 마친 사람의 경계(境界)이며 본래 내 고향인 것이다.

'이 뭣고'는 이주 정성스럽고 지극하고 간절하게 오직 모르는 당처인 '이'에 대고 하는 것이다. '이 뭣고'는 내 자성불과 마음속에 함께 하는 인간 세상을 향해 불도(佛道)의 장애를 주관하는 타화자재천의 우두머리인 마구니 마왕(魔王) 파순(波旬)이 하고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일체 불안(不安)과 시비(是非)와 속박(束縛)서 벗어나 자유롭고 존귀(尊貴)하게 하는 것이고 우주법계의 왕이 되는 것이다. '이 뭣고'는 성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고리이니, 한 생각만 뒤집으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중생의 분별심(分別心)은 생사윤회의 길잡이가 되지만, '이 뭣고'는 생사(生死)의 굴레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광명(光明)이니, 그 자리와 하나가 되면 절대 행복만이 상존(常存)하는 극락세계인 것이다. 그러니 밥 먹으면서도 밥 먹는 이놈이 무엇인지 걸을 때도, 일할 때도,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울고 웃을 줄 아는 이놈이 무엇인지 되묻는 '이 뭣고' 밖에 없는 것이다.

밖으로 상에 매인 중생들을 내안의 공성과 불성으로 회귀시키는 일대사 인연(因緣)이 바로 간화선 '이뭣고'

종일수타보(終日數他寶) 자무반분전(自無半錢分)이라는 말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종일토록 남의 보물을 세어도 나에게는 반 푼어치의 이익이 없다"는 의미이다. 언제 다시 인간몸을 받아 불법을 만나 깨쳐 본래의 내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그물에 천 코가 있지만, 고기가 걸리는 것은 '이 뭣고'의 한 코인 것이다.

옛날 염관(鹽官) 스님 문하에 7백여 제자 중 쉬일 스님이란 분이 계셨다. 이 스님은 나이가 50세가 넘도록 매일 대중 스님들의 뒷바라지만 하고 공부는 게을리 하며 허송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스님이 저녁 법당 옆을 지나가는데, 9척 장신이나 되는 험상궂은 남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신 누구요?"라고 스님이 물으니 "염라대왕이 당신을 끌고 오라고 해서 왔소."

내가 스님 시봉과 대중들 뒷바라지나 하다가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염관 스님 법문에 "7일만 목숨 걸고 참선하면 해탈한다고 했소, 그러니 나에게 1주일만 시간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고 간절히 애원했다. 그러자 그 험상궂은 사내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니 염라대왕에게 허락 받고 오겠다"고 말하고는 돌아 갔다. 이런일이 있은 후 쉬일 스님은바로 그 자리에 앉아 '이 뭣고' 화두를 간절히 들었다. 바늘귀에 실이 쏙 들어가듯이 '이 뭣고' 삼매三에 빠져 버리니, 저승사자가 7일 후에 다시 와서 아무리 그 시자를 찾아도 몸뚱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일화에서 보듯이 우리도 7일만 삼매에 들면 저승사자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반드시 해탈 하겠다는 큰 원력을 갖고 '이 뭣고' 수행을 하면 금생에는 성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강한 믿음이 든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53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8년 4월 2일(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